

대리석에서 무념무상 찾아내니...

조각가 한기름, 그로리치 화랑에서 28일까지 개인전

서양의 대리석에 구도(求道)와 성찰, '자연과 하나된 인간'(物我一體)과 같은 동양적 심성을 투영해 온 불자 조각가 한기름(법명 보광화)씨의 조각전이 서울 평창동 그로리치 화랑에서 8월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200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개인전 이후 3년만에 연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유' '기원' '자연속에서' 등 동양사상을 이탈리아 대리석과 오닉스를 이용해 표현한 조각작품 30여 점을 출품했다.

선정(禪定)에 든 모습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복잡한 세속에서 벗어난듯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사색적인 표정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또한 태고(太古)의 고요와 정지된 시공(時空)을 연상케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한없는 평온과 안식으로 이끌어준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선정한 '108 여성불자'로 전국구인회 명성 스님 유발상자인 한씨는 1991년 이탈리아 국립 까리라 미대로 유학을 떠나 15년간 이탈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늘 불교적인 주제를 담아왔다.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도시 카나 주 피에트라산타(Pietrasanta)에서 제주도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이 잠안한 불상에 매일 예를 올리며 불교사상을 조각에 담아낸 그는 1991년부터 살파 비틀린 연꽃양에서 반가사유상을 떠 올린 이후 10년간 '구도' 시리즈로 작품을 만들어



한기름 조각가와 그의 작품 '사유'.



었다. 고요히 합장한 손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을 표현한 구도 시리즈는 그의 구도적 삶과 예술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94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칸텔라이오화랑 초대전을 시작으로 28회 개인전, 130여 회 단체전을 열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금상(1994), 국제 조각심포지엄 특별상(이탈리아, 1995)등을 수상한 한씨는 2006년 세종문화회관에서 26번째 개인전을 열고 귀국했다. 이후 그는 10년간 이어온

종교적 주제에서 벗어나 인간본연의 색과 형상을 표출하고자 '자연'을 소재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한씨는 "저의 작품을 가까이 함으로써 누구나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서울, 뉴욕, 피에트라산타에 아프리카를 만들어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02)395-5907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과 휴식의 상징 '와불' 온다

성륜 스님, 8월 19~25일 서호 갤러리서 '와불전'

선화(禪畵) 그리기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성륜 스님이 8월 19~25일 서울 인사동 서호 갤러리에서 '와불(와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누워계신 부처님을 아난 존자가 시봉하는 모습, 다섯 수행자와 부처님이 나오는 그림, 10대 제자를 형상화한 그림, 대중법회를 연 부처님, 금강경을 독경하고 있는 스님 등 30여 점을 출품했다.

'와불'을 주제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성륜 스님은 "와불은 수행과 휴식을 상징한다"며 "가정에서 불자들이 와불을 보면서 편안하게 마음을 쉬고 생활속에서 정진하려는 뜻으로 그리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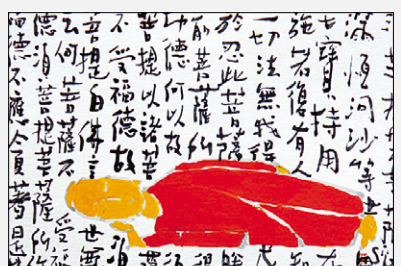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색깔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스님의 자유로운 화풍에 대해 서예 평론가 정충락씨는 "몇 가닥의 획으로 구성된 부처가

사바세계를 주시하거나,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의 그림은 규정돼 있는 제한의 완강한 거부로 통해 관념적 양식을 철폐하고 있다"고 평했다.

모든 고정관념과 분별을 떠난 대립과 차별이 없어진 결집없는 대 자유의 세계를 선화로 표현해온 성륜 스님은 인사동 화실 '수평당(水平堂)'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시간 외에는 늘 전국의 산하로 만행을 떠난다. 1983년 범어사에서 출가했지만 주석할 암자 하나 만들지 않고 세간 사람들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해온 것.

1989년 경인미술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10회가 넘는 개인전을 연 성륜 스님은 오는 12월 초 파리에서 산과 물고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02) 723-1864

김성우 기자



성륜 스님의 와불.

김영수 작가 '무아전'

중신회, 첫 지원프로젝트

불교문화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기업과 작가를 연계해 전시, 공연, 출판 등의 문화지원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8월 14~29일 종로 선주서관광호텔 1층 청계창작스튜디오에서 첫 불교작가 지원기획전시회 '무아(無我)-나'라고 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전을 연다.

'불교팝아트(Buddha popart)'라는 새 장르를 개척,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불교미술세계를 표현해온 김영수 작가는 조소작업을 기초로 설치, 영상, 회화, 사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다양한 오브제들을 차용해 불교의 현실성을 새롭게 표현한다. (02)2285-3392

이상연 기자



인터넷 불교서점 02)953-7181

옛 그림속 茶 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차물 끓는 순간 솔향 은은히 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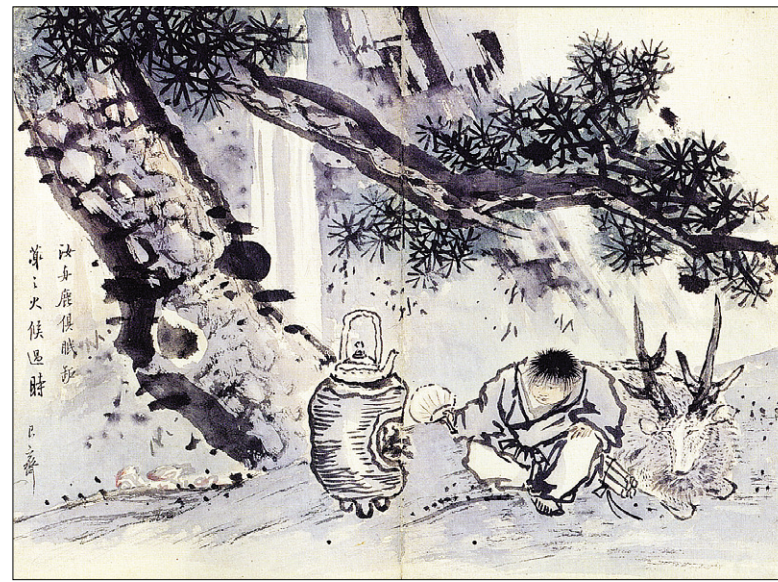
간송미술관에 불길을 조절하며 차를 달이는 동자를 그린 다화(茶畵) 한 점이 있다. 조선후기의 화가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이 그린 '선동전다도(仙童煎茶圖)'다. 집힌 자국이 선명한 화첩에 먹과 엷은 채색을 이용해 그린 그림으로 차를 주제로 한 회화 중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화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물은 왼편에 위치한 소나무이다. 평소 소나무를 가는 필선으로 섬세하게 묘사하던 이인문이 이 작품에서 만큼은 호랑만 필법을 구사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특히 소나무 등결과 시원하게 뻗은 가지의 주저함 없는 묘사는 탁월하다. 화폭을 뚫고 솟아오른 노송의 뒤편으로는 장쾌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와 폭포는 화면 밖의 무한한 공간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 부채질을 하던 동자가 고개를 든다면 그 시선은 자연히 소나무를 따라 오를 것이고 하늘 가까이에 이른 시선은 천천히 폭포를 따라 떨어지다가 다시 부채를 잡은 손끝에 모이지 않을까. 주전자의 차물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는 순간, 폭포가 일으키는 시원한 바람을 타고 소나무의 향기가 전해지는 듯하다. 차물 끓는 소리를 소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와 전나무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비유했던 나대경의 시구(松風檐杵)가 절로 떠오르는 장면이다. 상쾌해지는 마음을 표현이라도 하듯이 화면의 모든 경물은 온통 푸른색으로 채색돼 있다. 다만 소나무 왼편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영지만이 붉은 빛을 띠는데 그마저도 요란스럽지는 않다.

소나무는 나뭇가지 하나를 길게 뽑아 솔잎과 솔방울을 가득 매단 채로 동자에게 알뜰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기울어진 가지와 동자가 있는 언덕이 화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짐으로써 소나무는 가지를 뻗어 모든 경물을 감싸안은 모습이 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노루와 동자가 언덕의 능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니 짜임새 있는 구도를 즐겨 사용한 화가 이인문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이인문 작 선동전다도 간송미술관 소장.



의 영지와 노루 그리고 서권 두루마리는 모두 신선 이 사는 장면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신선들은 차를 약으로 마시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차를 마실 신선은 시문 속의 화자이자 지금 이 풍경을 바라보는 감상자가 아닐까. 이 순간 감상자는 그림과 동화돼 산간에 앉아 동자가 끓여내는 차를 기다리게 된다. 보는 것만으로도 차 한 잔을 마신듯 마음이 맑아진다. 그림에는 이러한 효용도 있는 것이다.

차와 사람 그리고 이들의 문화는 이번 연재의 주제가 될 것이다. 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뿐만 아니라 과거의 다양한 예술품을 참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차를 주제로 한 회화와 다구 그리고 고분벽화는 시대마다 다른 차 문화의 특징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차가 갖는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리라 믿는다. 인류가 차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차의 의미는 이를 향유하던 사람에 의해 변화해 왔다. 앞으로 24회에 걸쳐 차 향내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수료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미술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물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00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도봉이 매방"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안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스님!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병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 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